

# 강진군, 양식장환경 개선 위해 모래 살포

### 해수 온도 상승·갯벌의 빨질화 등 원인

### 1억5천만 원 사업비 투입...1,700톤 모래 살포

강진군이 올해 총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지막 양식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상반기에 이미 도암면 가우도, 칠량면 봉황, 대구면 남호 3개소에 9천만 원의 사업비로 1,000톤의 모래를 살포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12월~15일까지 칠량면 장계, 대구면 하저 2개소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700톤의 모래를 추가로 살포했다.

바지락은 우리나라에서 참갈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백합과의 패류로 완전한 개황(빨)층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폐사율이 높아 일정한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잘 자란다. 그러나 최근 해수 온도 상승과 갯벌의 빨질화 및 빨질화로 인한 '속' 대량 발생 등으로 인해 강진산 바지락은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 강진산 바지락의 옛 명성과 생산량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식장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래 살포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모래 살포 등으로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바지락 종패를 뿌리면 2~3년 뒤에는 맛 좋은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다.



바지락은 메티오닌 등의 필수아미노산은 물론 타우린, 베타인을 다량 함유한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숙취 해소와 간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며,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인 철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모래 살포사업의 효과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며, 바지락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안군,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20일까지 신청접수

무안군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소득보충과 건강증진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59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개 기관(무안군청,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무안시니어클럽)에서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노케어, 경로당 환경관리, 복지시설지원, 작은도서관 도서도우미 등 공익활동(1,587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시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20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하며 1일 3시간, 월30시간 활동하여 월 2천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무안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발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 수행기관 공익활동사업을 읍면사무소에서 통합모집 한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완도군에 마련된 열 번째 행복동지

완도군 신지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지난 16일 '완도군 10호 행복동지' 현판식을 가졌다.

행복동지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행복동지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총 12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복동지에 입주하게 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으로 기존 주택은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외벽 갈라짐이 심해 수리가 어려워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입주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은

"군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며 입주대상자만큼 기뻐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완도군청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행복동지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겨울에 생활이 더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한다."면서 "주위에 복지 위기가구가 있으면 군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꼭 연락을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행복동지사업 외에도 192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군새마을회,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장흥군새마을회의 13일 장흥군민회관 대강당에서 2019 새마을운동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정종순 장흥군수, 위동 장흥군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각 읍면 남녀새마을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총결산·마무리 하고, 그 동안 현장에서 새마을운동 개승·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쓴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하는 한편, 새마을운동 50주년을 위한 합찬 도약을 결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각종 표창을 시상한 정종순 장흥군수는 "한 해 동안 장흥군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고 2020년에도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의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논리 바둑 수업

# 영암군 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축제 개최

영암군은 지난 12월 13일 영암읍 망호정마을 소랏공원 일대에서 '영암군 체험휴양마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체험휴양마을 한마당 축제에서는 전통평영양군수를 비롯하여 체험휴양마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체험휴양마을 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150여명 정도 참석하여 말타기체험, 새끼꼬기체험, 연날리기 등 전래민속놀이를 한곳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장을

마련하여 조용한 농촌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생한 활기가 넘치는 축제가 되었다.

영암군은 현재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행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며 마을에 대한 홍보 및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어린이도서관, 체험프로그램 모집

목포어린이도서관은 내년 1월 7일부터 23일 까지 3주간에 걸쳐 지역 어린이 대상으로 '2020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과 유아들을 위해 총 12개 과목 23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강좌는 무료(단, 교재 및 재료비 본인부담)이다.

유아 대상 ▲ 엄마랑 나랑 책놀이(독서) ▲ 나랑 너랑 책놀이 ▲ 논리 바둑 ▲ 4D창의 융합과학 ▲ 그림책 미술(유아 독서/미술) 등 5개 과목 6개 강좌가 마련됐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 매쓰 크래프트(수학) ▲ 조물조물 우리역사 ▲ 어린이 창의공예 ▲ 그림으로 떠나는 미술여행 ▲ 책속 겨울이야기(독서) ▲ 추산과 암산 등 10개 과목 17개 강좌가 개설된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오는 18일부터 24일 까지 목포시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www.mokpolib.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